

쿠팡 공모주 대신 ‘쿠팡리츠’?... 물류리츠 덩달아 ‘들썩’

물류리츠 ‘ESR 켄달스퀘어리츠’ 임대면적 절반 가량 쿠팡이 임차 수혜주 주목... 주가 지속 호조세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뉴욕증시 상장을 본격 추진하면서 관련 투자처를 찾으려는 국내 투자자들의 발길이 분주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물류리츠로는 국내 최초로 상장한 ESR 켄달스퀘어리츠의 임대면적 절반을 쿠팡이 임차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쿠팡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후 첫 거래일인 지난 15일 ESR 켄달스퀘어리츠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 대비 2.90% 상승한 6040원에 장을 마감했다. 16일에는 전일(6040원)과 동일한 보합으로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23일 상장한 ESR 켄달스퀘어리츠의 주가는 꾸준히 오름세를



ESR 켄달스퀘어리츠.

/ESR 켄달스퀘어리츠 홈페이지 캡처

보이고 있다. 상장일 종가 기준으로 5190원을 기록한 ESR 켄달스퀘어리츠는 1월 한달간 2.29%의 주가 상승률을 나타냈다. 2월(2월1일~16일 기준)의 주가 상승률은 9.62%였다. 상장일 기준 현재(2월16일)까지의 주가 상승률은 무려 16.38%다.

그동안 ESR 켄달스퀘어리츠의 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었지만 2월 들어 상

승률이 높아진 것은 쿠팡 상장 이슈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ESR 켄달스퀘어리츠 임대면적의 절반가량을 쿠팡이 임차한 것으로 알려져 ‘쿠팡리츠’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장한 물류리츠인 ESR 켄달스퀘어리츠는 쿠팡을 비롯해 마켓컬리 등 주로 이커머스(E-commerce) 기업이 주요 임차인이다. ESR

켄달스퀘어리츠의 기초자산은 총 11개의 물류센터로 고양시, 용인, 부천 등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 8개, 도심권 2개, 부산권 1개다.

물류센터의 평균 준공 연한은 3.1년으로 준공 연한이 짧아 상대적으로 첨단 설비로 구성돼 있다. 현재 공급돼 있는 국내 물류센터 중 상당수는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로 공급되는 물류센터에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다.

ESR 켄달스퀘어리츠가 주목받는 주된 이유는 건조한 현금 흐름이다. 우량한 임차인, 높은 임대율, 높은 장기계약 비중, 분산된 임대 만기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것이 장점이다. 특히 대표적인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의 계약면적 비중이 50.1%로 WALE(임대기간)도 7년으로 길다. 보통 임차인이 자체적으로 설비를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 재계약에 대한 리스크도 낮은 편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가속화되고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 사용 증가가 현대적 물류시설에 대한 장기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라진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의 리테일, 호텔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리츠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물류 리츠는 온라인 시장 성장과 함께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ESR 켄달스퀘어리츠의 경우 쿠팡의 계약면적 비중이 50.1%로 우량 임차인 확보라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계약 리스크라는 단점이 공존하지만 임대기간이 7년으로 짧지 않고, 임차인이 배송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자체 설비투자도 진행하고 있어 재계약에 대한 리스크가 타 업종 대비 낮다”며 “또 온라인 시장 성장으로 인해 대체 임차인 확보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업재인 기자 yj1208@metroseoul.co.kr

중기유통센터, 성능인증제도 효율성 높인다 “롯데슈퍼서 비대면으로 택배 보내세요”

신청방식 회차별 정기공고로 전환 심사기간 단축, 공공조달 진입 지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중소·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지원을 위해 추가로 나섰다.

중기유통센터는 성능인증제도를 통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했음을 확인·증명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와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촉진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성능인증 확인을 받은 제품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중기유통센터는 관련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기존의 연중 수시 신청 방식에서 회차별 정기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처럼 기간을 정해 심사를 진행하면 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성능 인증서 발급 시기 등도 사전 예측이 가능해 판로 개척 활동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신

품목 융복합적 제품의 심사를 위해 기존 8개 분과에서 14개 분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영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성능인증 처리단계별 일정과 결과를 참여 기업에 실시간 공지하고 심사 처리기간 단축 등 기업의 편의성도 더욱 높일 예정이다.

성능인증제도는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총 4455건의 성능인증제품 인증서를 새로 발급했다.

올해 1차 성능인증 신청기업 모집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누리집에서 오는 3월5일까지 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롯데글로벌로지스 서울 4곳서 운영 서울~부산 2500원... 반품도 가능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비대면 시대에 맞게 셀프 택배 발송이 가능한 무인택배함을 운영한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서울에 위치한 롯데슈퍼 프리미엄도곡, 프리미엄잠실, 잠원, 잠실3동점 등 4곳에서 무인택배함을 시범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무인택배함은 세면의 합이 최대 100cm 이하인 소형화물 전용으로 롯데택배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접수 후 이용하면 된다. 택배비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추가 요금없이 2500원으로 발송이 가능하다.

롯데슈퍼에서 구매한 물건이나 개인 발송건은 물론 롯데택배로 받은 물건을 반품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롯데글로벌로지스 '무인택배함'.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시대흐름에 맞게 무인택배함을 확대 설치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권 중견기업 해외진출 세미나

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추가로 나섰다.

중견권은 오는 25일 서울 마포 상봉회사회관에서 ‘2021 중견기업 해외 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선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메가 FTA 활용 전략’ 등 FTA를 활용한 효과적인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공유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심화된 해외 출입국 애로 해소 방안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는 ‘원산지 누적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EU) 수출 시 한국산 원단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하는 EU-베트남 FTA 등 성공 모델과 업종별 비즈니스 활용 방안을 소개한다. 또 주요 추정 사례를 중심으로 FTA 활용률 증가에 따라 확대할 사후 검증 리스크 해소 전략도 제시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시몬스, 침대 노하우 담은 ‘토퍼’ 첫 선

매트리스 레이어링 기술 적용

시몬스가 토퍼 제품을 처음으로 내놨다.

시몬스는 프리미엄 토퍼 매트리스인 ‘N32 토퍼 매트리스(N32 Topper Mattress·사진)’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이즈는 퀸(QE), 슈퍼 싱글(SS) 두 가지로 소비자 가격은 각각 88만원, 68만원이다.

시몬스가 개발한 N32 토퍼 매트리스는 자사의 컨템퍼러리 매트리스 컬렉션인 ‘N32’ 라인으로, 시몬스 고유의 레이어링(Layering) 기술을 그대로 적용했다. 50여 종의 프리미엄 내장재를 밀도, 강도, 성질, 촉감의 미세한 차이에 따라 섬세하게 조합하는 이 기술을 통해 토퍼에서도 높은 순간 고유의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소재도 차별화했다. 겉면에는 식물성 소재인 린넨 자카드 원단을 사용해 통기성과 산뜻한 감촉을 살렸으며, 커



버 스펀지는 공에서 추출한 천연 식물성 소재를 사용해 고탄력을 자랑한다.

시몬스는 이번 신제품에도 엄격한 안전기준을 준수했다. N32 토퍼 매트리스는 국내 토퍼 제품 가운데 유일하게 환경부의 국가공인 친환경 인증과 라돈 안전제품 인증 등 두 가지 안전 인증을 모두 획득했다. /김승호 기자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참가 스타트업 모집

중기부, 내달 17일까지 접수 AI 외 분야 넓혀 40곳 선정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지난해 인공지능(AI) 분야에 한정했던 것을 올해엔 AI 외에도 데이터, 네트워크 분야까지 대상을 넓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 참여할 예비 또는 창업기업 40곳을 오는 17일부터 3월17일까지 한 달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혁신기술 분야에서 유망 창업 아이템을 갖춘 창업기업에게 글로벌 대기업과 국내외 전문가의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글로벌 창업기회자의 액셀러레이팅과 해외

네트워킹과 사업화 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1기를 운영했다.

작년 8월 설립 이후 60개 창업기업이 참여해 5개월 만에 84억원의 매출과 144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총 59억원의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2년차인 올해엔 지원 분야와 멘토링 기업 등 범위를 더욱 늘렸다.

우선 지원 대상 분야가 데이터, 네트워크, AI로 넓어졌다. 또 교육기관으로 지난해 참여한 글로벌 대기업인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 구글 클라우드가 올해부터 새로 참여해 기술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